

남편 & 아내

TV를 보며 멍하게 있는 남편. 낯이 나간 표정으로 배를 긁적거리다.
현관 초인종이 울린다.

목소리 : 택배요~

현관으로 나가보는 남편. 택배가 와 있다.
현관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나오면서 아내에게 말한다.

남편 : (상냥하게) 여보~ 택배 왔어~~

그리고 다시 TV를 보는데 '핑둥' 또 택배가 온다.

목소리 : 택배 두고 갑니다.

택배들 들고 투덜거리며, 약간 짜증이 난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 그러다.

남편 : (조금 귀찮은 듯) 여보~ 택배~~

약간 머쓱한 표정의 아내. 그리고 조금은 짜증 난 듯한 남편.
다시 앉아서 TV를 보는데 초인종이 또 울린다.
나가서 문을 열어보니 아내의 이름으로 와 있는 택배

남편 : 하루에 택배가 3개나 오냐!

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냐~ 홈쇼핑 좀 그만 보라고~

아내 : 아~ 미안해~ 대신 오늘 재활용은 내가 버리고 올게~

남편 : 뭐... 그럼 땡큐지 뭐...

기분이 풀렸는지 다시 히죽거리며 TV를 보는 남편.

몰래 눈치를 보더니 박스 수 십개 (웅탱이)를 정리해서 들고 나간다.

남편 & 아내

저번과 다르게 오붓하게 TV를 보고 있는 부부.

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온다.

핸드폰을 확인하고 잠시 뜬을 틀어놓으니, 나가려 하는 남편

남편 : 나~ 잠시 재할용 좀 버리고 올게~

아내 : 응? 오늘 내가 버리는 날 아니야?

남편 : 그냥~ 답답해서 바람도 좀 쉴 겸~

아내 : 그럼 뭐~ 나야 고맙지~

어색하게 웃으며 편한 복장으로 나가는 남편

1층으로 내려가 경비실 앞에 쌓인 택배들을

경비 : 아저씨~ 택배를 왜 자꾸 경비실로 보내는 거예요!!

남편 : 죄송합니다~ 죄송합니다~

황급히 박스 5개 정도를 챙겨서 들고 나온다.

“캠핑 용품 아닌 것처럼 책이라고 적어주세요”

그 글을 보고 남편은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한다.

남편 : (아 뭐야! 이걸 그대로 적어 놓으면 어떡해!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~)

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. 아무 일도 없다는 듯 TV를 본다.

약간 눈치를 보지만, 아내는 TV에 빠져있다. 들키지 않았다!

남편 : 우리 주말에 캠핑이나 갈까?

아내 : 캠핑 ??

남편 : 날씨도 좋고, 이런 날 또 야외에서 불멍 하면~

아내 : 알았어~

며칠 뒤 캠핑장

신나게 장비를 펼쳐서 세팅을 하고 있다.

아내 : 이거 다 못 보던 거다? 나 몰래 택배 시켰니?

남편 : 어...?? 어...????? 응 ?? 아니...?? 어...

딸 & 엄마

방에 급하게 들어와 뭔가를 찾는 딸.
찾는 물건이 없어서 짜증이 났다. 그리고 큰 소리로 엄마를 부른다.

딸 : 엄마~ 나 택배 온 거 못 봤어!?
엄마 : 어? 그거 네 방에 가져다 놔지~

다시 투덜거리며, 방으로 돌아온다.
한참을 찾는데 없다. (실제로 안 보인다)

딸 : 엄마! 없잖아~~ 택배 어디 둔 거야~
엄마 : 응? 그거 아가 네 방에 뒀는데~ 책상 위에 있어~

더러운 책상. 아무리 찾아도 없다. 계속 찾아도 없다.
(실제로 없다)

딸 : 엄마! 없잖아~ 내 택배 어디다 뒀냐니까?
엄마 : 진짜 책상 위에 뒀다니까~
딸 : 진짜 없다니까 그러네~~!!
엄마 : 너~ 찾아서 나오면 진짜 혼난다!
딸 : 뭐래 진짜! 와서 찾아줘!

엄마가 책상에 가보니, 한가운데 바로 위에 있다.
한 번에 집어서 딸에게 들이치는 엄마

엄마 : 것 봐! 여기 딱 올려져 있잖아!
(궁시렁거리며) 잘 찾아보지도 않고서는....
딸 : 이상하다... 아까는 진짜 없었는데.....

자매 (남의 택배 뜯어보는 유형)

언니가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다.

동생 : 언니! 나 택배 온 거 어딴어!?

언니 : 그거? 아까 뜯어서 네 책상 위에 뒀지~

화장품 좀 그만 사라 진짜~

동생 : 아 진짜! 왜 언니가 뜯어봐!!

언니 :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~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더만~

동생 : 야! 김유미! 니가 그걸 또 왜 써!!!

언니 : 뭐!? 김유미!? 이게 언니한테 진짜!

한번 발랐다 진짜! 나 나 간다~~

동생 : 그 옷이랑 가방 하나도 안 어울리거든!!

언니 : (짜증 나는 표정으로 확 바뀐다) 뭐.... 뭐래 진짜!!

약 오르는 동생. 언니는 부랴부랴 데이트를 나간다.

아파트 입구. 언니에게 핸드폰 문자가 온다.

[택배 전달해 드립니다.]

언니 : 어? 택배? 내가 안 받았는데?

방 안에서 복수의 표정을 하고,

'김유미'라고 적힌 택배 상자를 음흉하게 바라보는 동생

씨의 웃고는 택배를 뜯어 버린다.

**이상한거에 집착하는 공대생
(택배 아저씨 올 때까지 계속 확인하는 유형)**

택배 발송 문자가 온다.

공대생 : 지금 발송이니까 내일 도착하겠지?

다음날 배송 조회해 본다. 아직 집하장이다.

공대생 : 아, 뭐야 ~ 이럼 내일 도착하잖아!!

다음날 택배 도착 예정 문자가 온다.

공대생 : 아~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~

지금 우리 동네 집하장이니까, (거리를 재보고)

거리상 1.5 km

택배가 적은 목요일에 기사님 동선을 예상 측정해 보면

모니터로 집하장과 집까지 거리를 재고,

희한한 수학 공식을 아인슈타인처럼 적으면서 도착시간 계산을 한다.

문 앞에 서 있는 택배 기사

기사 : 여기가 102호니까~ 두고 가야... '아이! 깜짝아'

택배 기사가 초인종을 누르려 한다.

문을 벌컥 열고 나오는 언니. 기다렸다는 듯 택배를 받는다.

공대생 : 감사합니다~~